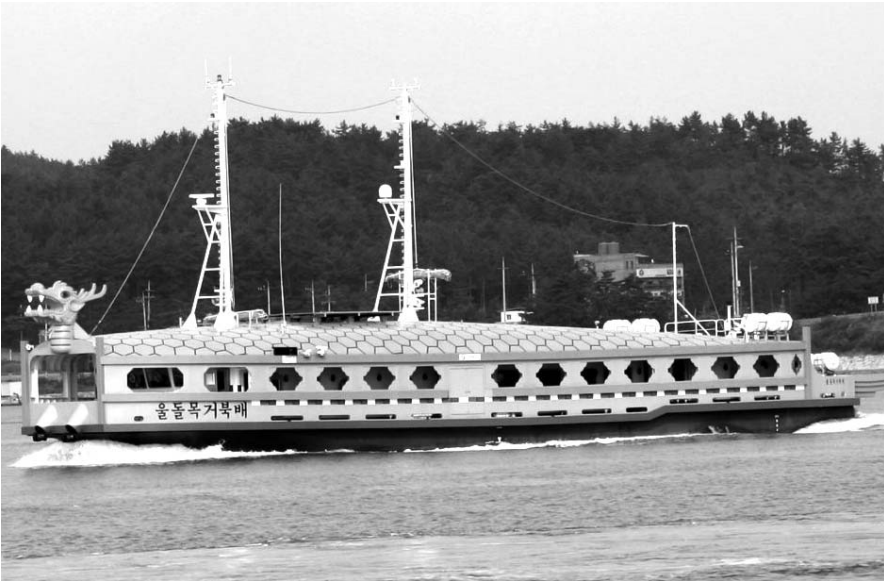


해남군, ‘울돌목 거북배’ 내년부터 운항한다

적자운항 ‘허덕’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무상 양여 받아
군, 유람선 변경·선상카페 운영 등 관광수요 창출 기대

해남군이 적자가 누적되면서 운항이 중단된 ‘울돌목 거북배’를 무상으로 인수해 내년 1월부터 운항에 들어간다.
해남군은 최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울돌목 거북배’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44억원을 들여 건조한 ‘울돌목 거북배’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우수영항과 진도 벽파항까지 왕복 15km 구간을 운항했으나 적자가 누적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취항 후 10년간 쌓인 적자만 35억원에 달한데다 선장 등 인건비와 보험료 등 연간 4억원의 운영비가 고스란히 적자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항을 중단한채 엔진 등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전남개발공사는 해남군에 무상으로 양여를 결정했다.
해남군은 울돌목 거북배를 유람선으로 등록하고, 코스도 지역에 맞게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우수영항과 화원 목포구등대, 임하도 인근 등의 코스를 개발하고, 땅갈 등 다른 지역의 운항가능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항시간 외 결박시에는 선상 카페 등으로 활용하고, 울돌목 거북배의 활성화를 위해 땅갈 해맞이 거북선 투어와 명랑대첩 축제 해전 체험 등의 이벤트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10월 공식적으로 무상 양수받아 정기점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거북배 운



해남군이 ‘울돌목 거북배’를 무상으로 인수해 내년 1월부터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양여 받은 울돌목 거북배의 항해 모습. <해남군 제공>

항을 통해 체험거리가 부족한 우수영권 관광여건을 개선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완도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총력

캐나다 클레이요트 생물권 보전연맹과 상호 합의문 서명
양 지역민 공동체 등 정보·경험 공유 국제협력사업 강화

완도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해외에서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캐나다 클레이요트 생물권보전연맹(CBT)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에 공식 서명하고 협력에 나섰다.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토피노시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정석호 완도부군수와 레베카 휴이트 클레이요트 생물권보전지역연맹 대표이사, 조지 오스본 토피노 시장 등이 참석했다.
클레이요트 생물권보전지역은 캐나다의 유일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뛰어난 자연 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간직해 보전지역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은 바다와 섬, 숲 등 정경한 자연환경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위해

클레이요트 생물권 보전지역과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관계를 수립하는 등 협력하고자 합의문을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민과 공동체, 연구자들 간 연합 구성 및 국제 네트워크 참여, 교육관광 과 생태관광,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보와 경험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토피노시는 2000년을 전후로 벌목 산업 중심에서 관광 산업으로 전환, 생물권보전지역의 대외적 명성을 활용하며 현재 산업의 90%가 친환경 관광 산업으로 바뀌었다.
군은 관광 산업 확장을 위해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벤치마킹해나갈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자



완도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토피노시를 방문, 클레이요트 생물권 보전연맹(CBT)과 상호 협력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이다”며 “해양치유산업과 생태문화를 접목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

역 등재를 위해 2020년 2월 신청서를 한국 MAB에 제출하고 9월께 영문본 신청서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제1회 아리랑코리아대상’ 시상식 무형유산부문 진도아리랑 보존회 최고상 받아

(사)진도아리랑 보존회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아리랑코리아대상’ 시상식에서 무형유산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사진>
아리랑코리아대상은 한류 문화 확산과 세계화를 위해 (사)한류문화산업포럼과 서울시가 올해 처음 제정했다.
진도아리랑 보존회는 민족의 얼 아리랑 보존과 대내·외 확산에 공헌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병훈 회장이 중심이 돼 전국 최초로 아리랑 보존단체인 (사)진도아리랑 보존회를 1985년 조직,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진도아리랑 가사집(800여수)을 발간했다.
해외와 국내 등 300여회 공연을 통해 아리랑 발전에 기여하고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 알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세기 말에 집필된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에서 아리랑의 가장 오래된 기록을 발견해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아리랑과 관련된 논문 30여편 발표하는 한편 진도아리랑을 진도군 향토자료 지정(제1호), 정선·밀양·진도아리랑 등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교류전 개최와 함께 진도 아리랑 체험관과 진도아리랑 아카데미 등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진도 아리랑이 등재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군, 특별교부세 20억 확보 재난안전 사업 지원

진도군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해 재난안전 분야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이 기대된다.
진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진도군에서 건의한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 분야 등 총 2개 사업에 대해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조도면 옥도 연도교 신규 개설(15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과 도리산 전망대와 세방낙조 데크 보수·보강 사업

등 재난안전 분야이다.
조도면 상조도 바로 옆에 위치한 옥도는 상조도와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교량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시설 이용 및 생필품 구입시 선박을 이용해 이동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군은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신규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군, 5일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주차문제 해결

완도군이 시장 상권 활성화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완도 5일 시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운영에 들어갔다.
완도 5일 시장 공영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인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최근 준공했다.
주차장은 2층, 3단 구조로 일반 90면, 장애인 5면, 경차 13면, 총 108면의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장날 발생하는 주차난 해소는 물론 평소 인근 도로변 불법 주차가 근절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고산 윤선도 삶 주제 문화강좌 개최

9~11월 세차례...이형대·이종범·김대현 교수 초빙

해남군은 고산유물전시관에서 조선 중기 국문학 최고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고산 윤선도의 삶을 주제로 한 문화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강좌는 9월에 시작해 11월까지 매달 한차례 열린다.
윤선도 연구의 권위자들을 초빙해 고산의 삶과 사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첫 강좌는 21일 이형대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를 초빙해 ‘고산 윤선도의 삶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이형대 고려대 교수는 고산의 대표적인 유고집인 ‘고산유고’를 번역하는 등 고산 연구 전문가이다.
10월 26일에는 이종범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의 ‘고산윤선도와 사림시대 호남의 문

장가들’, 11월 23일 김대현 전남대 교수의 ‘은둔의 시인 고산과 호남의 문장가들’ 강좌가 연달아 열린다.
참가 신청은 전화 또는 고산유물전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산 윤선도의 삶을 이해하고 살펴볼 좋은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동부 **센트레빌** 상가
사정상 급매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급매 - ~~9억~~ → 6억5000만원

마지막, 300평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덕남동 임야,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